Beyond the RISK
Geopolitical Research

2025. 11. 24.

Geopolitical Research

안정 추구 vs. 버블 잉태

'26년 7대 지정학 변수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26년 7대 지정학 변수

내년 글로벌 지정학 환경을 포괄할 한 단어를 꼽는다면 ‘[1] 다극화 시대’이다. 미국 유일의 단극이 약화됨에 따라 각국에게 각자도생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제조업 복원과 군비 경쟁’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소위 이중용도 기술로 인식되는 ‘[2] AI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개방적이고 선도적이며 미래 인프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 점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지 주목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주도의 AI 투자가 혁신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와 경쟁적 과잉,중복 투자로 재정 악화와 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병존한다.

이 같은 투자 경쟁에서 중국이 ‘[3] 핵심 광물의 무기화’를 시사하고 있는 점은 서구의 딜레마이다. 다극화 시대에 국제적 갈등 조정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잠복 불확실성이다.

경제적으로는 ‘[4] 美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리더십 교체가 예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 압력에 대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된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될 지 관심이다. 한편, 내년 중반 FIFA 월드컵 북미 3국 공동 개최와 미 독립 250주년 등 ‘[5] 북미 대형 이벤트’는 소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연말에는 ‘[6] 美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역대 결과는 현직에 압도적으로 불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민주당도 약체라는 점에서 판세 예측은 시기상조이다.

한반도에서는 ‘[7]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변수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주기로 정례화되고 있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가 ’26년 1월경 예상된다. 김정은 권력의 공고화, 우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미 전략 향배가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하반기 미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상반기에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친러, 친중 기조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 이외에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내년에도 이상의 ‘7대 지정학 변수’를 좌우할 인물은 트럼프이다. 다만 게임이론 측면에서는 내년 안정적 상황 관리가 그의 최선 선택이라고 본다. 미-중 관계는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적 업적을 쌓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과도한 경기 부양 경도가 내년 이후 버블을 잉태할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 전략팀
유승민 팀장/이사
strategist.you@samsung.com

이지혜 연구원
jhye53.lee@samsung.com

REPORT
CONTENTS

01 '26년 7대 지정학 위험 04p

02 Appendices 19p

PART
01

‘26년 7대 지정학 위험

[1] 다극화 시대: 각자도생(各自圖生)

▶美 단극 약화에 따라 (관세 or 투자로) 동맹국에게 패권 유지 위한 비용 분담 요구

-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 질서를 주도한 美와 자유주의 국가들의 신뢰 약화. 이에 따라 느슨한 관계 속에서 동맹국들의 자립 모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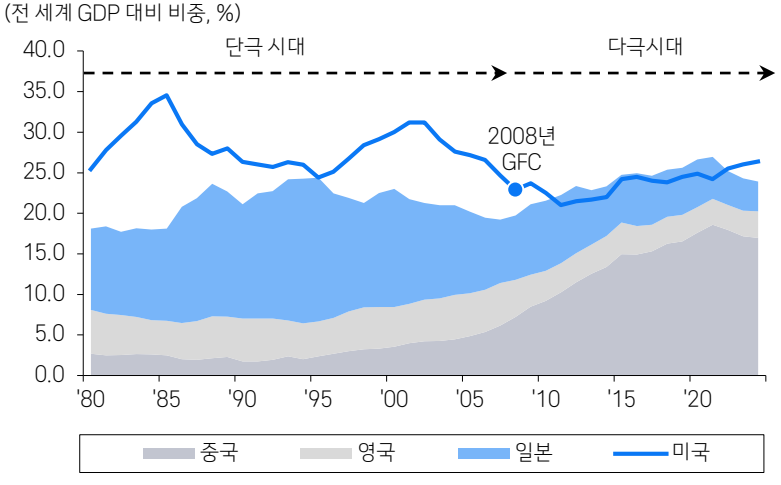
▶그러나 당장 中이 反美 세력의 블록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 대신 장기 전략 측면에서 이 국가들의 중심 역할 지속, 강화 예상

- 中,반미 블록의 패권국 역할(경상수지 적자 감당, 기축통화 체제 유지) 시기상조. 美의 견제 속에서 실질 국력 배양에 당분간 주력 필요

▶'美와 G7 약화 – 중 패권 역량 강화 – 러시아, 인도 등 중간국 부상'에 따라 상당 기간 다극화가 국제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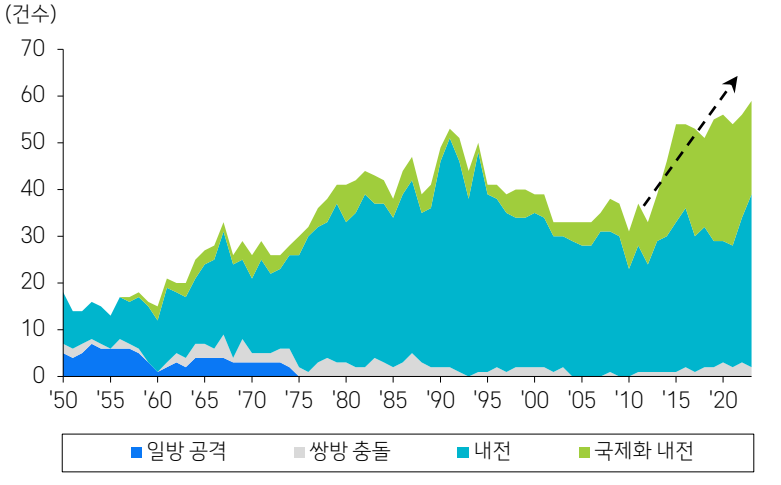
- 패권국의 선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의 '각자도생' 불가피하며, 이는 군비 증강으로 연결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 국가 아님 (전 세계 GDP 대비 주요국의 비중 변화)



참고: GDP, current prices 기준(2024)
자료: IMF, 삼성증권

단극 국가의 영향력 약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제 분쟁 발생 증가 양상



참고: 2023년까지 집계
자료: Uppsala Conflict Dataset, 삼성증권

[1] 다극화 시대: 제조업 복원과 군비 경쟁

강대국들은 상대국의 의도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에 따라 위협을 평가 (John J. Mearshei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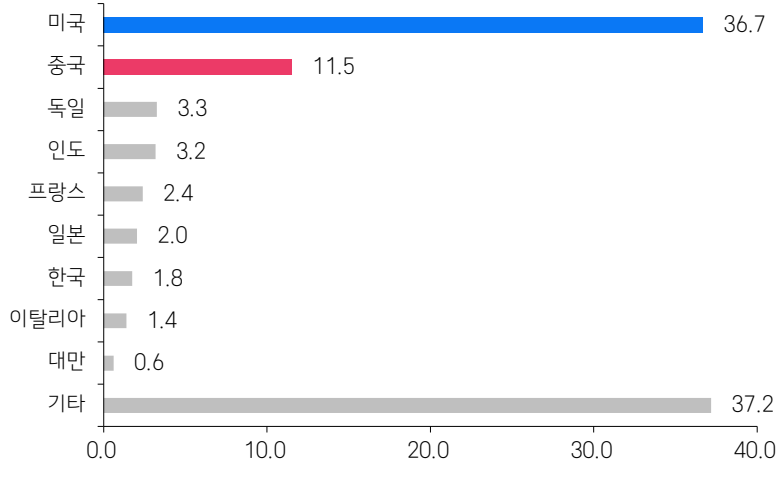
▶평시와 달리 유사시는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전쟁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기본적 제조 역량이 더 중요 (美 등 서구의 시급한 보강 과제)

- 美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美 국방비는 2위 중국, 3위 러시아를 포함해 11위 한국까지 포함한 규모 만큼이나 큼)
- 반면, 제조업 생산능력으로 비교하면 정반대 (中의 제조업 생산능력은 2위인 美와 나머지 10여 개국을 합한 수준)

▶강대국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자조(self-help)를 위해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려 함. 다극화 시대 군비 경쟁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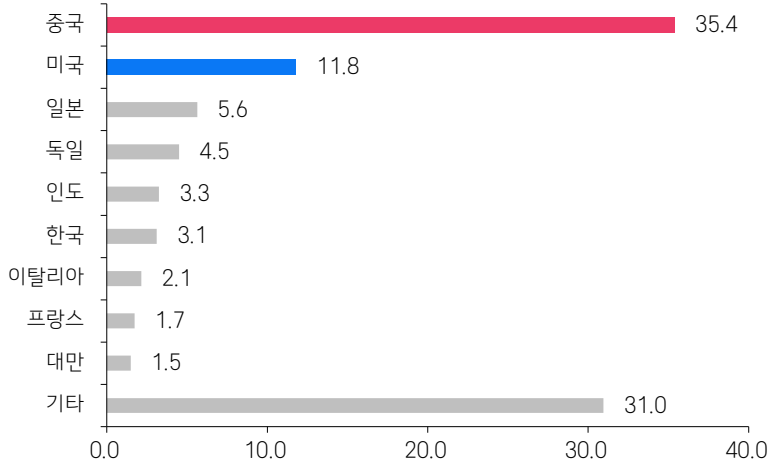
- 다극화 시대에 대비한 각국 국방 능력 강화 투자의 방향은 다를 전망. 美는 첨단화, 유럽은 자주 국방, 中은 양과 질을 모두 강화

전 세계 대비 주요국의 국방비 지출 비교(%)



참고: 우측 제조업 생산 상위국 중심 재정리, 2024년 기준 국방비 지출액으로는 러시아가 3위
자료: SIPRI, 삼성증권

전 세계 대비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량 비교(%)



참고: 제조업 생산 상위 10개국, 제조업 총매출 기준(2024년)
자료: OECD, 삼성증권

[2] AI 패권 경쟁: 중국, 미국을 넘어서나

각국의 AI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에서 중국은 가장 개방적이고 선도적이며 미래 인프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 점하고 있음

▶중국은 'AI+' 행동 전략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농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AI 계획을 추진 중

- 동부의 데이터를 서부에서 처리하는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로 서부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인프라를 구축 중
-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에 국가 차원 지원 (SMIC 중심 반도체 제조 능력 강화, 화웨이의 자체 AI 칩 개발 등)

▶AI 컴퓨터 용량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나 전력 인프라에서는 중국이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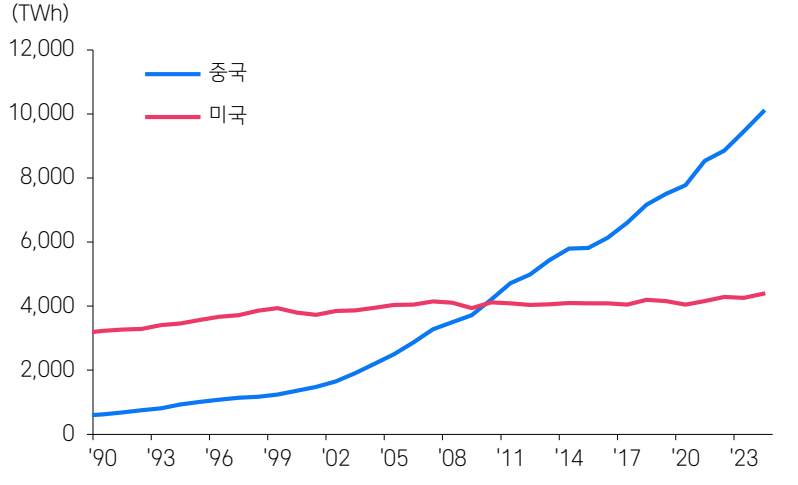
- 중국은 2024년 한 해만 429GW의 신규 발전 용량을 확대 (vs. 미국 48.6GW의 약 9배)

주요 AI 모델의 분석지능 지수 상위 1~15위

모델명	지수	개발국	소스개방
GPT-5 Codex	68	미국	Closed
GPT-5	68	미국	Closed
Kimi K2 Thinking	67	중국	Open
Grok 4	65	미국	Closed
Claude 4.5 Sonnet	63	미국	Closed
MiniMax-M2	61	중국	Open
gpt-oss-120B	61	미국	Closed
Grok 4 Fast	60	미국	Closed
Gemini 2.5 Pro	60	미국	Closed
Qwen3 235B A22B 2507	57	중국	Open
DeepSeek V3.2 Exp	57	중국	Open
GLM-4.6	56	중국	Open
Claude 4.5 Haiku	55	미국	Closed
Gemini 2.5 Flash	54	미국	Closed
gpt-oss-20B	52	미국	Closed

참고: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v3.0 기준
자료: Artificial Analysis('25.11.10 조회 기준), 삼성증권

중국 vs. 미국 총 전기 생산량



참고: 원 출처는 Ember 에너지 연구소 (2025)
자료: Our World in Data, 삼성증권

[2] AI 패권 경쟁: 혁신 기대 vs. 버블 우려

AI 패권 경쟁의 결과에 대한 상반된 예측 존재. 국가 주도 투자의 AI 혁신 vs. 과잉 중복 투자와 재정 악화, 버블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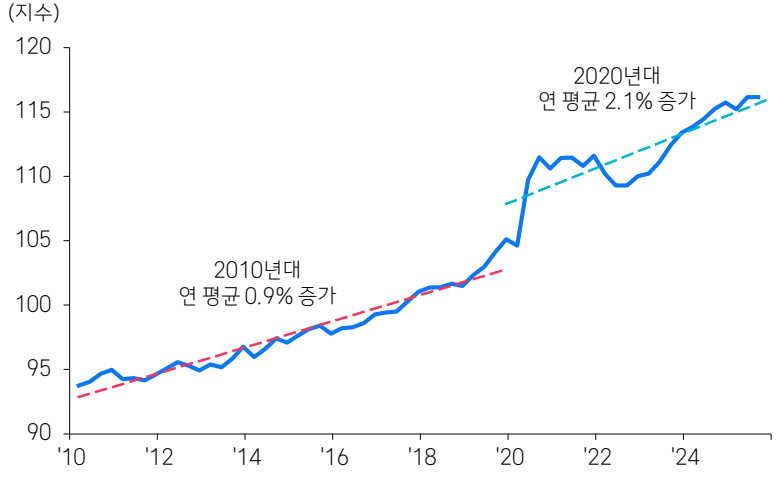
▶과거 냉전기에 국방 부문의 R&D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 현 AI 패권 경쟁이 21세기판 Sputnik Momentum이 될 것이라는 기대

-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민간 부문의 '필요적 학습'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혁신, 경제 성장을 촉진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부채 수준이 높고 인구 고령화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와 군비 경쟁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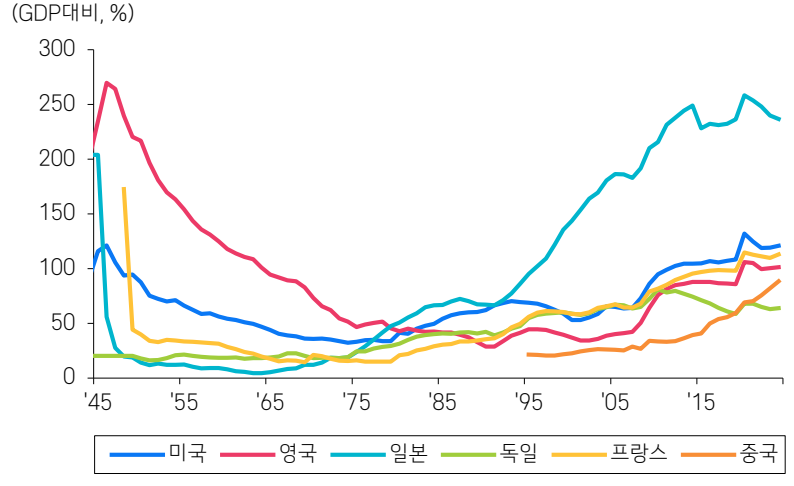
- 국방비 지출 등대로 사회 복지 지출 등이 축소 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관련 예상의 완전 삭감 or 세금 인상 곤란)
- 결과적으로는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 특히 경쟁적 중복 투자로 경제 성장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어 결국 버블화 우려

美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추이**



참고: 2020년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개선의 배경을 AI의 채용 가속화 때문으로 해석하는 시각 있음
자료: IMF, 삼성증권

주요국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추이



자료: IMF, Bloomberg, 삼성증권

[3] 핵심 광물의 무기화: 중국, 전략적 활용 의지 표명

美·中 전략경쟁 상황에서, 中은 희토류 및 첨단산업 소재 공급망 전 주기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편입하고 수출 통제 규정 도입

▶일부 핵심 광물의 경우 생산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 상황 따라 공급망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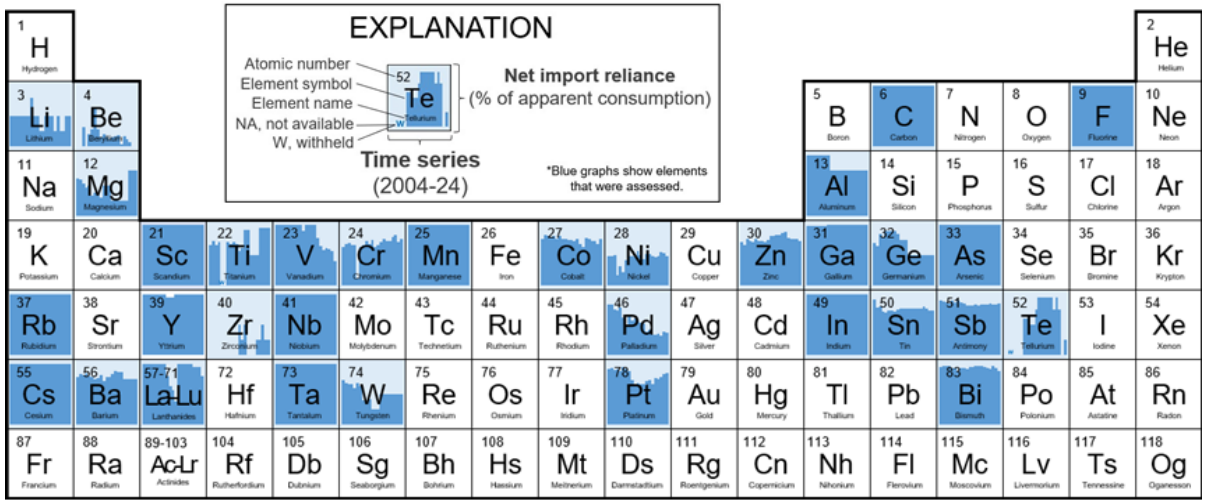
- 美 조사 의하면 핵심 광물 중 17개의 생산이 중국에 50% 이상 집중. 5개 광종은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이 중국에 의해 지배

▶중국의 희토류 등에 대한 통제 발표는 단기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 장기적으로 대외 관계에서 전략적 활용 목적을 분명히 한 것

- 中은 '25. 10월에 기존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 자국 수출통제 제도의 역외 적용, 관련 기술·인력 통제 강화 조치 등 발표
- 중국판 FDPR* 도입으로 평가. 중국산 희토류 또는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상무부 허가 필요

*Foreign Direct Product Rule(해외직접제품 규칙)

지난 20년간 미국의 핵심 광물 순수입 의존도(net import reliance) 추이



참고: 2024년 기준 핵심 광물 대상. 원소 주기율표 상 각각의 원소에 그려져 있는 파랑색 막대 그래프는 2004~24년까지 미국의 소비량 대비 순수입 의존도(NIR)의 변화를 표시
자료: 미국지질조사국(USGS), 삼성증권

[3] 핵심 광물의 무기화: 국제적 갈등 조정 능력 부재

공급 구조가 경직된 상태에서 수출 제한 등의 무역 규제가 가중되면 심각한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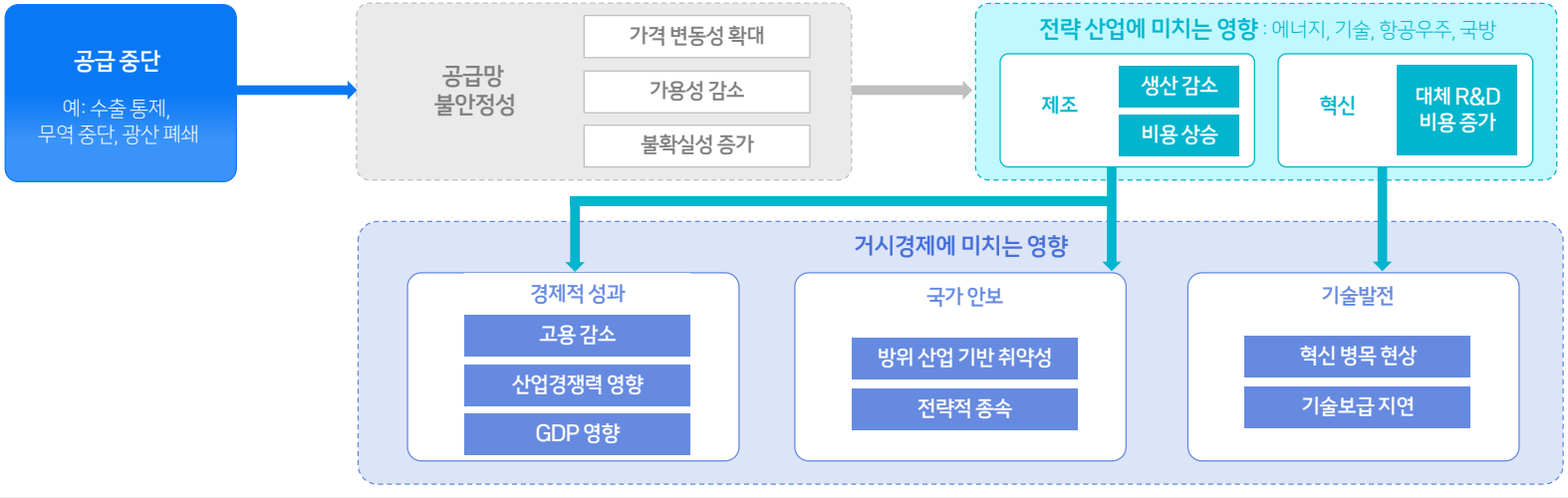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리튬, 희토류, 갈륨, 텅스텐 등 전략 광물의 수급 불균형은 파급력이 크게 확산될 수 있음

▶핵심(=전략)광물은 특히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의 공급 집중도가 높아 지정학적 위험에 취약

- 가격 변동성, 공급 불확실성, 부산물 위험, 대체 불가능성, 수출통제 등의 공급 위험을 내재

▶다극화 시대에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됐고 국제적 갈등을 조정할 기구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

전략 광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전략 산업 및 후방산업의 파급효과



참고: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자료: IEA, 삼성증권

[4] 美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리더십 변화

내년 신임 연준 의장과 이사에 親 트럼프 인사 임명 예상됨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 부상

▶美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

- 연준은 통화정책 수립, 美 달러지폐 발행(동전은 연방정부가 발행), 기타 은행 관리 및 감독/규제, 금융체계 안정성 유지 등 역할

▶연준 이사회(FRB)는 7인 구성 / 대통령 임명 / 상원 인준 / 임기 14년 (보궐은 전임자 잔여 임기 수행, 연임 가능)

-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임기는 4년(연임 가능)
- 제롬 파월 현 의장은 '18.2월(이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이후 연임, 내년 5월 퇴임 예정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현 구성**

직위	성명	이사 임기	직위 임기	성향	비고
의장	제롬 파월 (Jerome Powell)	'14.6.16~'28.1.31	'22.5.23~'26.5.15	Neutral / Dovish	의장 퇴임 이후 이사 임기 남으나 사퇴가 관례
부의장	필립 제퍼슨 (Philip Jefferson)	'22.5.23~'36.1.31	'23.9.13~'27.9.7	Neutral	
감독 부의장	미셸 보우먼 (Michelle Bowman)	'20.1.30~'34.1.31	'26.6.9~'29.6.8	Very Dovish	
이사	마이클 바 (Michael Barr)	'22.7.19~'32.1.31		Neutral	부의장(~'26.7.13) 직위 조기 사퇴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Christopher Waller)	'20.12.18~'30.1.31		Dovish	
이사	리사 쿡 (Lisa Cook)	'22.5.23~'38.1.31		Neutral	트럼프 퇴임 압박 중
이사	스티븐 미란 (Stephen Miran)	'25.8.7~'26.1.31		Very Dovish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잔여 임기 수행

참고: '25년 11월말 기준, 음영은 친 트럼프로 분류, 성향은 언론 종합
자료: 연준, 언론 보도, 삼성증권

[4] 美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트럼프의 정치적 통제 압력

오랜 역사를 통해 확보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나, 연준 리더십 교체 이후 원칙 지켜질 것인지 우려

▶美 전역을 12개 지구로 나눠 연방준비은행 설치, 각 은행장 5명이 순환하며 연준 이사 7명과 함께 연방공개시장위원 임기 수행(1년)

-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기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압박 지속
- 親트럼프 임시 연준 이사인 스티븐 미란은 법적으로 연준에게 삼중 책무가 있다고 지적 (최대 고용, 물가 안정, 적정 장기 금리 유지)

연방준비은행 지역별 현황

지구	FOMC 순환 그룹	연방 준비은행	연준 총재	FOMC 위원	성향	비고
2		뉴욕 연준	존 윌리엄스 (John C. Williams)	상시	Dovish	
1	A	보스턴 연준	수잔 M. 콜린스 (Susan M. Collins)	'25년	Neutral	
3	A	필라델피아 연준	패트릭 하커 (Patrick T. Harker)	'26년(e)	Neutral	
5	A	리치먼드 연준	토마스 바킨 (Thomas I. Barkin)	'24년	Neutral	
4	B	클리블랜드 연준	베스 M. 해맥 (Beth M. Hammack)	'24년, '26년(e)	Neutral / Hawkish	
7	B	시카고 연준	오스탄 굴스비 (Austan D. Goolsbee)	'25년	Dovish	
6	C	애틀랜타 연준	라파엘 보스틱 (Raphael W. Bostic)	'24년	Neutral / Hawkish	'26.2월 조기 퇴임 예고
8	C	세인트루이스 연준	알베르토 G. 무살렘 (Alberto G. Musalem)	'25년	Neutral / Hawkish	
11	C	댈러스 연준	로리 K. 로건 (Lorie K. Logan)	'26년(e)	Neutral	
9	D	미니애폴리스 연준	닐 카쉬카리 (Neel Kashkari)	'26년(e)	Dovish	
10	D	캔자스시티 연준	제프리 R. 슈미트 (Jeffrey R. Schmid)	'25년	Neutral / Hawkish	
12	D	샌프란시스코 연준	메리 C. 데이리 (Mary C. Daly)	'24년	Dovish	

참고: 음영은 '26년 예상 FOMC 위원(지구를 4개로 구분해 지역 연준은행장이 순환으로 임기 수행), 성향은 언론 종합
자료: 연준, 언론 보도, 삼성증권

[5] 북미 대형 이벤트: FIFA 월드컵 북미 3국 공동 개최

1994년 이후 32년 만에 미국에서 FIFA 월드컵 개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스포츠 이벤트 될 전망

▶제23회 FIFA 월드컵이 캐나다 – 미국 –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 ('26.6.11~7.19)

▶공식 대회 명은 'United 2026'이며 사상 최대 48개국 참가

- 미국 11개 도시에서 78경기, 멕시코 3개 도시/캐나다 2개 도시에서 각각 13경기 (개막전은 멕시코 시티, 결승전은 뉴욕/뉴저지)

▶전 세계에서 650만 명 관중 참석, 전 세계 GDP 400억 달러 증가 예상 (FIFA 추산)

FIFA 월드컵 2026의 경제적 영향 추정

지역	구분	총 생산 (백만 달러)	GDP (백만 달러)	노동 소득 (백만 달러)	* 고용 창출 (명, 전일제 기준)
미국	직접 영향	4,380	5,707	3,405	61,463
	간접 영향	13,350	4,139	2,470	44,579
	유발 영향	12,730	7,302	4,357	78,637
	총 영향	**30,460**	**17,148**	**10,232**	**184,679**
	승수	2.19	1.23	0.73	13.25
미국 외 전 세계	직접 영향	2,361	2,201	946	40,237
	간접 영향	4,600	1,586	702	35,068
	유발 영향	42,646	19,983	8,889	563,490
	총 영향	**49,607**	**23,770**	**10,537**	**638,795**
	승수	3.56	1.71	0.76	45.83
전 세계	직접 영향	6,741	7,908	4,351	101,700
	간접 영향	17,950	5,725	3,172	79,646
	유발 영향	55,376	27,285	13,246	642,128
	총 영향	**80,067**	**40,918**	**20,769**	**823,474**
	승수	5.74	2.94	1.49	59.09

참고: * 고용 계산 목적상, 투자기간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고용된 노동력의 상당 부분(40%)의 평균 임금이 전국보다 낮은 임시직 저숙련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하여 추정
자료: FIFA (World Cup 2026 impact analysis), 삼성증권

[5] 북미 대형 이벤트: 감세와 美 독립 250주년 등으로 소비 부양

트럼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FIFA 월드컵 등과 연계하여 소비 부양 및 정치적 업적 부각의 기회로 활용

▶상반기 세금환급과 연중 내내 대대적인 기념행사로 소비 부양 목표

- OBBBA 시행에 따라 '26.2월 이후 전년 세금 환급 등을 통해 1,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소비자 지원이 제공될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즉시 행정명령으로 250주년 기념 TF 설립하여 직접 지휘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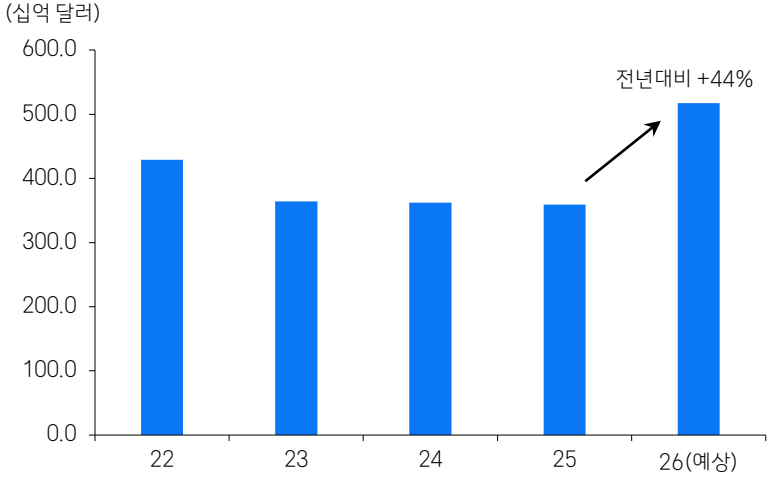
- 지난 독립 200주년은 1976년이었으며 당시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 지미 카터에게 패배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앰블럼

AMERICA 250

자료: 위키피디아, 삼성증권

美 연방 세금 연간 환급액 규모



자료: CBO, 삼성증권

[6] 美 중간선거: 역대 결과는 현직에 압도적으로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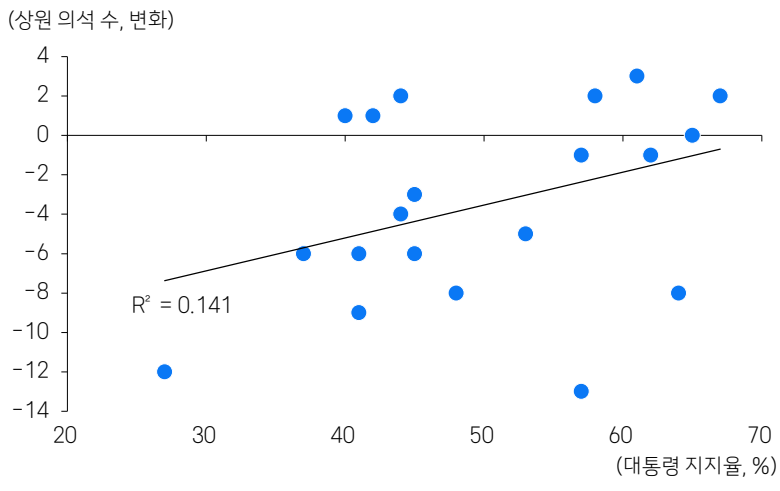
역대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 국가 비상상황만 연방의회의 의석 수를 늘림

▶1846년 이래 43번의 중간선거 중 집권당이 의석을 추가해 승리한 사례는 단 3번에 불과

- 1934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민주당) : 대공황 극복 목표, 상원 민주 60 → 69석(+9) / 하원 민주 313 → 322석(+9)
- 1998년 윌리엄 J. 클린턴(민주당) : 탄핵 역풍·경제 호황, 상원 민주 45석 (유지) / 하원 민주 206 → 211석 (+5)
- 2002년 조지 W. 부시(공화당) : 9·11 테러 이후 국민 단결 분위기, 상원 공화 50 → 51석(+1) / 하원 공화 221 → 229석(+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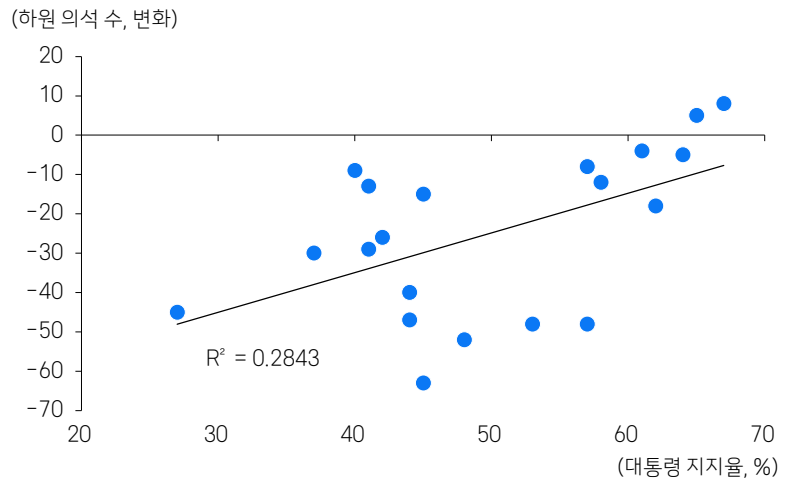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일관성 보임

대통령 지지율과 중간선거 이후 '상원' 의석수 변화의 상관관계



참고: 대통령 지지율은 중간선거 직전 10월 2주 평균(갤럽 기준), 1946~2022년
자료: UC Santa Barbara, 삼성증권

대통령 지지율과 중간선거 이후 '하원' 의석수 변화의 상관관계



참고: 대통령 지지율은 중간선거 직전 10월 2주 평균(갤럽 기준), 1946~2022년
자료: UC Santa Barbara, 삼성증권

[6] 美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부진, 민주당도 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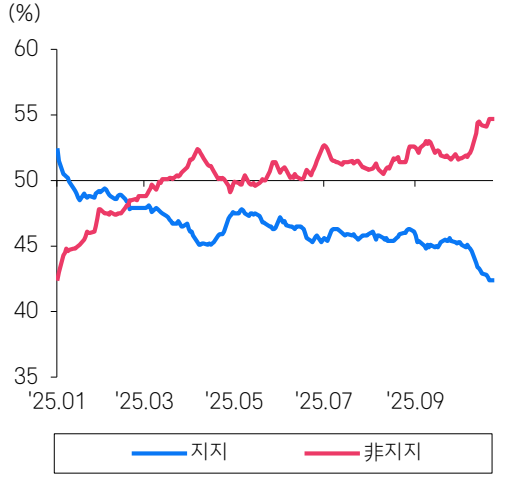
▶중간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지속, 반면 의회구도 변화 전망도 아직은 낮음

▶중간선거 승리 위해 트럼프 업적 수립과 부각. 경제 및 외교 관계 등에서 안정 추구 예상

▶다만, 5월 파월 연준 의장 퇴임 이후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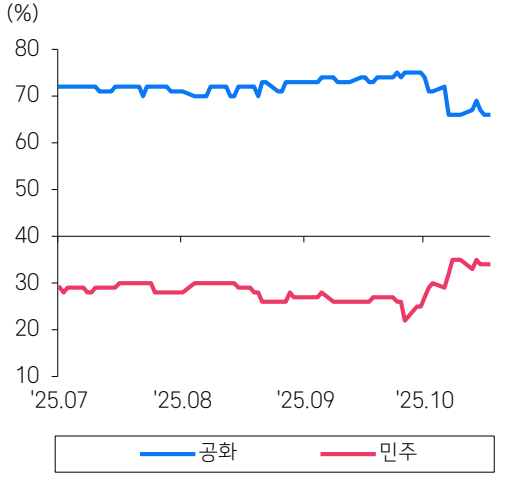
▶연준 의장 교체를 전후로 행정부가 연준 개입을 노골화할 경우 버블 및 인플레 우려 고조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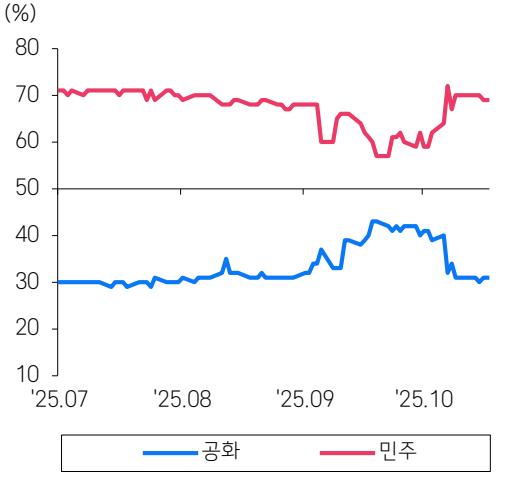
자료: Real Clear Politics, 삼성증권

내년 중간선거 이후 상원 다수당 예측



자료: Polymarket, 삼성증권

내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 예측



자료: Polymarket, 삼성증권

[7] 북-미 정상회담 (?)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연초 북한의 제9차 당대회 결과가 주목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주기로 정례화되고 있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가 '26년 1월경 예상

-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주요한 정책 결정, 정치 구조 변화의 계기가 됨. 김정은 권력의 공고화, 우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미 전략 향배도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하반기 미 정치 일정 감안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상반기가 가능

-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상반기(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4월 트럼프 방중 전후)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측
- 최근 북한의 친러, 친중 기조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 이외에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신중

북한의 역대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	참고	주요 안건
1차	1946. 8.28~30		당 창립, 당 강령, 규약, 기관지에 대한 보고 / 당 중앙위 및 중앙검열위 선거 / 당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 채택
2차	1948. 3.27~30		당 중앙위 사업결산 보고 / 당 규약 수정 및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3차	1956. 4.23~29		당 활동 최고 지침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제시 /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6~60년) 수립
4차	1961. 9.11~18		당 지도 이념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추가 /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67년) 수립
5차	1970.11. 2~13		당 지도 이념으로 '주체사상' 표방 /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0~76년) 수립
6차	1980.10.10~14	1994.7.18 김일성 사망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김정일' 선출) / 80년대 10대경제전망목표 제시
7차	2016. 5. 6~ 9	2011.12.17 김정일 사망	당 위원장으로 '김정일' 추대 /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 제시
8차	2021. 1. 5~12		당 총비서로 '김정은' 추대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제시
9차	2026. 1 (예상)		당 규약 변경 / 국가경제발전 계획 제시 등 (예상)

자료: 삼성증권 정리

변수: 내년에도 최대 변수는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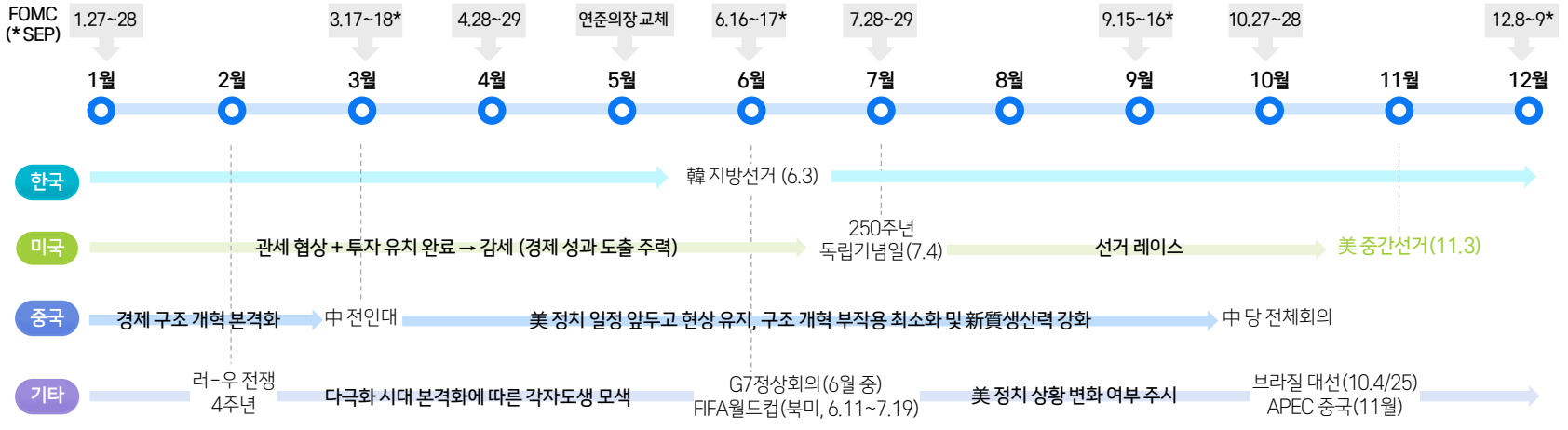
정치가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거나 버블을 촉발할까?

▶트럼프 중간선거 승리 위해 업적 수립 및 경제 안정 추구 예상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결집 위해) 대중 견제 지속

▶그러나, 게임이론 측면에서는 (경제 안정 위해) 갈등 고조보다 안정 관리가 트럼프의 최선 선택

'26년 주요 국내외 정치 일정 및 이벤트



자료: 삼성증권 정리

PART
02

Appendices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2025년 Review

- (4/2) **미국 ,상호 관세 발표(liberation day)**
  : 135개국에 일괄 상호 관세 10% 부과(4/5~)
  : 대미 무역흑자 큰 57개국 11~50% 상호 관세 발표
- (4/9) **상호 관세 90일 유예(단 기본관세 10%는 유지)**
- (5/13) **미-중 제네바 협상, 양국 수입관세 잠정 인하**
- (5/30)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 50% 인상 발표**
- (6/9~10) **미-중 2차 런던 무역 협상**
  :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6개월간 재개
  : 미국, 중국 유학생 비자 허용 및 대중관세 55% 유지
- (6/17~18) **6월 FOMC**
  : 금리 동결, 연내 2회 인하 전망 유지하며 시장 예상 부합
- (6/24~25) **2025년 NATO 정상회의**
  :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035년까지 5% 달성 목표 합의
- (7/20) **일본 참의원 선거**
  : 이시바 정치 기반 약화, 대내 정치/재정정책 불확실성 가중
- (7월말) **중국 정치국 회의**
  : 기존 재정 및 통화 정책 기조 유지,
  민생 개선에 대한 소비 확대가 언급된 점은 긍정적
- (7/20) **이시바 총리 조기 퇴진(이후 다카이치 총리 지명)**
  : 다카이치 총리, 금융 완화 및 재정 확대 정책 기조
- (9/8) **프랑스 바이루 총리, 불신임 투표 가결**
- (9/10~11) **9월 ECB 통화 정책 회의, 금리 동결**
- (9/16~17) **9월 FOMC, 25bp 인하 및 dot plot 상향조정**
- (10/28~29) **10월 FOMC**
  : 25bp 금리 인하, 12월 자산 규모 축소(QT) 종료 발표
- (10/28~31) **APEC 정상회담**
  : 미국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은 대미 희토류 제재 완화
  : 한미 정상 회담에 따른 대미 협상 타결

'25년&26년 Preview

- (12/9~10) **12월 FOMC**
  : CME Fed watch에 따르면 금리 동결 확률 70.4%로 상승
  :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데이터 공백으로 연준 신중한 스탠스
- **미국, 상호 관세 대법원 최종 판결**
  : 11/5일 변론기일 이후 대법관 판결문 작성 착수
  : 사안의 중대성 고려 시 올해 최종 판결 가능성 높다고 판단
  : 위법 판결 시, 상호 관세 부과 법적 효력 상실
  → 3월 이후 부과된 상호 관세 환급 이슈 발생
- (26/1/27~28) **미국, 1월 FOMC**
- (2/1~15) **방글라데시, 총선 실시**
  : 민족당 승리 가능성 유력. 국민시민당과 이슬람 주의 정당 자마아트-이슬라미와 경쟁 구도
- (2/15~23) **중국, 춘절 연휴**
- (2/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
- (3월 중) **중국, 전인대**
- (3/17~18) **3월 FOMC, 당사는 25bp 금리 인하 예상**
- (4월 중) **IMF Spring meeting**
- (4/28~29) **4월 FOMC**
- (5/1~5) **중국, 노동절**
- (5/15)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
  : 현재 거론 중인 후보는 총 5명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케빈 해싯, 케빈 워시, 릭 리더)
  : 위 후보 모두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스탠스 보여주고 있음
  : 트럼프의 내수 진작(주택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 목적
- (6/3) **한국, 제 9회 지방선거 실시**
- (6/16~17) **6월 FOMC**
  : 당사는 25bp 금리 인하 예상

2026년 Preview

- (6월 중) **G7 정상회의**
  :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개최 예정
- (6/11~7/19) **북미 3국, 제 23회 FIFA 월드컵 공동 개최**
  : '94년 이후 약 30년 만에 미국에서 월드컵 개최
  : 美 11개 도시에서 78경기, 멕시코 3개 도시, 캐나다 2개도시에서 각각 13 경기 예정
- (7/4) **미국 독립 250주년**
  : 트럼프는 지난 2년간의 성과 강조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회복에 힘쓸 것
- (7/28~29) **7월 FOMC**
- (9/15~16) **9월 FOMC**
- (10/7)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3주년**
- (10/27~28) **10월 FOMC**
- (11/3) **미국 의회 중간선거**
  :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있는 해 증시 성과는 그렇지 않은 해 비해 부진하고, 통상 선거 3개월 전부터 변동성 상승
  :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의 정책 추진력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집권당과 야당에게 모두 중요
- (12/8~9) **12월 FOMC**

참고: 현지 시각 기준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 분석 2020년 12월
이슈1. 지정학분석이 필요한 이유
이슈2. 지정학위험과 영향
이슈3. 2021년 3대 지정학위험

지정학 분석 2021년 1월
이슈 1. 북한 8차 당대회 결과와 시사점
이슈 2. 글로벌 10대 지정학위험
이슈 3. GPR로 본 관찰국가

지정학 분석 2021년 2월
이슈 1. 美 NSC 핵심들의 對중국 시각
이슈 2. 바이든 인선의 포석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1년 3월
이슈 1. 미국의 對중국 「기술유출 통제 기구와 법안」
이슈 2.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위한 「금융시장 법안」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1년 4월
이슈 1.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 시작
이슈 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쟁점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1년 5월
1. 디지털 화폐의 출현과 통화패권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추진 현황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1년 6월
이슈 1. Build Back Better World(B3W) 구상
이슈 2. 중국의 일대일로와 도전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1년 7월
이슈 1. EU의 탄소국경세 시행 발표
이슈 2. 유럽 그린딜의 이해
이슈 3. EU의 탄소배출 감축메커니즘

지정학 분석 2021년 8월
이슈 1. Geopolitical Alpha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1년 9월
이슈 1. 시-독트린(Xi-Doctrine)의 시대
이슈 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슈 3. 시진핑 2기와 투자 시사점
이슈 4. 중국 자본시장의 기타 쟁점

지정학 분석 2021년 10월
이슈 1. 북한 경제상황 점검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1년 연말호
이슈 1. 2022년 7대 지정학 위험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 분석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위기 긴급 점검

지정학 분석 2022년 2월
한반도 위기, 데자뷔 2017?

지정학 분석 2022년 3월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인가?

지정학 분석 2022년 4월
이슈 1. 미-이란 핵 협상, 인플레이션의 게임체인저가 될까?
이슈 2. 주요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2년 5월
이슈 1. 지경학 시대의 본격화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 분석 2022년 6월
이슈 1. 2022년 미국 중간선거 Preview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반도체)
이슈 1. 지경학 시대의 도래
이슈 2. 반도체 거점화의 시대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배터리-자동차)
이슈 1. 지경학 시대, 갈등 전개의 다층적 틀
이슈 2.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배터리, 완성차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방산, 바이오, 사이버)
이슈 1. 안보투자 전성시대
이슈 2.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방산, 바이오, 사이버

2023년 7대 지정학 위험
이슈 1. 미-중 패권 경쟁
이슈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3. 이란과 중동 불안
이슈 4.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지정학 분석 2023년 2월
이슈 1. 2023년 러-우 전쟁 전망
이슈 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3월
이슈 1. 중국의 미국관
이슈 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 분석 2023년 4월
이슈 1. OPEC+ 전격 감산 발표
이슈 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5월
이슈1. Great Decoupling 시대
이슈2. Great Decoupling 시대의 투자
이슈3. Great Decoupling 시대의 승자와 그림자

지정학 분석 2023년 6월
이슈1. BRICS 공동통화의 도전
이슈2. 통화와 패권

지정학 분석 2023년 8월
이슈1. 중국의 경제 게릴라戰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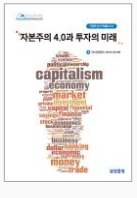
지정학 분석 2023년 9월
이슈1. BRICS의 확장과 시사점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10월
이슈1. 지정학노선과 무역재편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11월
이슈1. 2024년 지정학 전망
이슈2. 주요국 지정학위험 지수

지정학 분석 2024년 1월
이슈1. 2024년 미국 선거 개요
이슈2. 바이든 승리 가능성과 트럼프 2.0 미리보기
이슈3. 금융시장 시사점

지정학 분석 2024년 3월
이슈1. 바이든 vs 트럼프 rematch
이슈2. 미국 금융시장 시사점
이슈3. 2024 미국 선거 개요



지정학 분석 2024년 4월
이슈1. 자본주의 4.0과 투자의 미래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4년 6월
이슈1.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4년 7월
이슈1. 선거 상황 중간 평가
이슈2. 트럼프 경제 정책 4대 쟁점
이슈3. 트럼프 산업 정책과 주식 마스켓
이슈 4. 글로벌 자산 배분전략 시사점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 분석 2024년 11월
이슈1. 선거 결과 종합
이슈2. 트럼프 2.0 경제 정책 7대 쟁점
이슈3. 트럼프 2.0 글로벌 자산시장 영향
이슈4. 트럼프 2.0 Cabinet 거론 인물

지정학 분석 2024년 12월
이슈1. 보편적 기본 관세 (UBT)
이슈2. 정부 효율성 위원회 (DOGE)
이슈3.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SBR)
이슈4. 트럼프 2.0 Cabinet 지명자

지정학 분석 2025년 1월
이슈1. 트럼프의 본심
이슈2.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슈3. 마라라고 합의(Mar-a-Largo Accord)
이슈4. 시사점

지정학 분석 2025년 3월
이슈 1. 마라라고 합의 구상
이슈 2. 국부펀드 창설 구상
이슈 3. 시사점

지정학 분석 2025년 7월
이슈1. 관세 이후의 세상 - 다극화 시대의 투자
이슈2. 주요국 지정학위험지수 (GPR) 추적
이슈3. 신흥국 CDS 프리미엄 모니터링
이슈4.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지정학 분석 2025년 9월
이슈1. 트럼프와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
이슈2. 주요국 지정학위험지수 (GPR) 추적
이슈3. 신흥국 CDS 프리미엄 모니터링
이슈4.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지정학 분석 2025년 10월
이슈1. 트럼프의 국부펀드 설립 구상
이슈2.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논쟁
이슈3.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와 국가·경제안보기금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MEMO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